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

-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문화변동을 중심으로 -

우 정 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

-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문화변동을 중심으로 -

우 정 연(한국학중앙연구원)

- 목 차 -

Ⅰ. 송국리유형의 시공간적 특징
Ⅱ.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사회
1. 기존 연구 검토
2. 정치경제적 전략과 사회문화적 가치
Ⅲ.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문화변동

Ⅰ. 송국리유형의 시공간적 특징

송국리형 토기와 주거지 및 묘제 등으로 구성되는 송국리유형[1]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2]의 주요한 물적 지표이자 본격적인 복합사회의 등장과 관련된 물질문화로서 그 시공간적 분포에서 사회문화적 함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은 안재호(1992)에 의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안재호는 송국리유형을 기존의 역삼동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역삼동유형을 전기,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중간적 형태를 보이는 선송국리유형을 중기 전반, 송국리유형을 중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이에 대해 송만영(1997)은 역삼동유형이 존속되는 가운데 송국리유형이 발견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소위 선송국리유형은 역삼동유형 분포권과 송국리유형 분포권 사이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선송국리유형은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 사이의 과도기적 양상이 아니라 문화접변을 나타내고 따라서 남한지역 전체에 걸쳐 송국리유형을

1) 본고에서 '유형'은 반복적으로 공반 관계를 이루며 발견되는 유구와 유물 복합체를 지칭하는데, 그러한 공반 관계가 과거에 지녔을 수 있는 의미는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맥락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禹娗延 2010: 145).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이 과거의 주민집단을 반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도출해야 할 결론의 문제이지 용어나 개념 정의를 통해 미리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朴淳發 1999; 李盛周 2006; 李亨源 2007).

2) 필자는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중기를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출현을 기준으로 기원전 10-4세기로 구분한다. 이 시기에는 화성-평택-청주-상주-대구-울산을 경계로 호서지역, 호남지역, 영남 서부지역에 송국리유형(김승옥 2015a: 61), 서울-경기지역에서는 II기 역삼동유형(김한식 2006; 李眞昱 2004), 북한강유역에서는 천전리유형(金權中 2008), 동남해안권에서는 검단리유형(裵眞晟 2005)이 주로 분포한다.

기준으로 전기와 중기를 편년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2000년대 이후 송국리유형 재지발생설(金壯錫 2003, 2006; 羅建柱 2005, 2013; 이형원 2009)과 외부유입설(禹姃延 2002; 李眞旼 2004; 李弘鍾 2002; 이홍종·허의행 2013)로 대표되는 여러 가설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송만영(2015)은 비래동 유적의 유구경식 비파형동검과 함께 송국리 유적 (장)방형 주거지, 52지구 5호 석관묘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54지구 대지성토층의 구순각목문토기를 가락동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서 역삼동유형이 아니라 가락동유형에서 송국리유형이 발생했다고 보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필자도 구순각목문이 전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속성이지만, 금강 상류의 진안 일대에서 발견된 구순각목문토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유구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金承玉 2003), 특정 지역 또는 유적에서 구순각목문토기가 시간성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禹姃延 2010: 156). 그러나 구순각목문은 가락동형, 역삼동형, 흔암리형, 송국리형 토기에 채택될 뿐만이 아니라 구순각목문토기가 점토대토기와 공반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동북한지역과 중국 요령지역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분포하므로 특정 유형의 지표로서 계통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형원 2009: 25). 또 토광형 또는 무시설식 노지도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서까지 발견되므로, 이러한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를 모두 역삼동형 주거지로 볼 수는 없지만(宋滿榮 2013: 11), 마찬가지 이유로 가락동형 주거지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 이처럼 송만영이 송국리 유적에서 확인된 구순각목문과 토광형 또는 무시설식 노지를 역삼동유형과 가락동유형에 공통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가락동유형과 관련시키는 데에는 토기 구연부 문양의 퇴화·소멸론에 입각한 그의 형식학적 편년관이 주요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편년관은 절대연대나 유구 중복관계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황재훈 2014). 더 나아가 송만영(2015: 64)은 금강 이남지역 전체를 송국리유형 등장 이전에 가락동유형 분포권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필자도 차령산맥이 1차 경계, 금강이 2차 경계가 되어 역삼동유형과 가락동유형 분포권이 구분된다고 본다(宋滿榮 2015: 77; 李亨源 2007: 62). 그러나 송국리유형 등장과 관련해서는 금강 이남지역도 다시 가락동유형이 분포하고 있었던 상류권, 전기의 물질문화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중류권, 서해안과 인접한 하류권으로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우정연 2014a: 109-113, 2014b: 349-356).

위와 함께 송만영(2015)은 필자(禹姃延 2002, 2010)의 호서지역 송국리유형 유적 및 송국리 유적 편년 연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중 유적 순서배열(禹姃延 2002: 50)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유물들을 비교단위로 삼았다는 지적(宋滿榮 2015: 74)에 대해서는 필자도 비교 대상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필자(禹姃延 2010)가 송국리 유적의 모든 유구들을 동일 시기로, 특히 (장)방형 주거지와 송국리형 원형 주거지를 동일 단계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송국리 유적에 대한 최근 발굴조사 결과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宋滿榮 2015: 74-75)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안재호(1996)의 견해에 동의하여 송만영이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상이한 형식의 석도들이 송국리 유적이 점유될 당시 이미 모두 출현하여 공존하고 있었고(禹姃延 2010: 153-154), 송국리 유적 내에서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은 모두 원형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원형 주거지의 하한이 장/방형 주거지의 하한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禹姃延 2010: 155), 대지평탄화 작업 이전과 이후, 유구들의 중복 관계 및 규칙적인 분포상, 출토 유물의 형식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송국리 유적 유구들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단절적인 시기적 차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禹姃延 2010: 153-7),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송국리 유적 12-14차 발굴 담당자들의 견해(이동희 2014; 정치영·민은숙 2011)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송만영(2015: 94)은 송국리 유적 52지구 1호 석관묘 출토 유구경식 비파형동검이 비

래동 유적 1호 지석묘의 유구경식 비파형동검보다 이를 수 없다고 보았는데, 필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52지구 분묘군에서 북쪽에 놓인 1호 석관묘 뒤로 2호와 3호 토광묘가 1호 석관묘로부터 같은 거리를 두고 서로 평행하게 놓여 횡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묘군의 석관묘와 토광묘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형성되어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편이 출토된 5호 석관묘는 동검이 출토된 1호 석관묘보다 남쪽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5호 석관묘가 1호 석관묘보다 늦게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禹娅延 2010: 161). 따라서 1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유구경식 비파형동검의 상한은 5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편의 상한보다 이르거나 양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禹娅延 2010: 161). 이처럼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송만영의 견해에 대해 몇 가지 이견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송만영의 연구에서처럼 송국리유형 등장 과정에서 역삼동유형뿐만이 아니라 가락동유형이 지녔던 의미도 다각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金容乾 2013).

지금까지 호서지역에서 보고된 비파형동검은 모두 송국리형 묘제 및 원형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금강 이남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금강 상류의 대전 비래동 유적 1호 지석묘(성정용 1997), 대전 상대동 중동골·양촌 5호 석관묘(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중류의 부여 송국리 유적 1호 석관묘(金吉植 1998), 하류의 서천 오석리 오석산 유적 주구석곽묘(忠淸文化財硏究院 2008)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이 중 경부가 남아있지 않은 중동골·양촌 출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구경식인데, 이 유구경식 동검들은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처럼 전형적인 송국리유형 단계 유물보다 상한이 올라가는 유물들과 한 무덤 또는 분묘군 내에서 공반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유구경식 비파형동검 출현에 있어서의 이러한 시공간적 특징과 비래동 출토품의 절대연대를 고려할 때, 호서지역에서 유구경식 동검은 기원전 10세기경 '동시다발적으로'(宋滿榮 2015: 94) 금강 이남지역에 등장하였고, 곧 송국리유형의 여러 요소들도 이러한 '관계망'(김장석 2006: 73-74, 2008: 34-35)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송국리유형 핵심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송국리유형 최초 발생 또는 등장 지역으로서 호서지역을 주목하는 연구자들과 달리 안재호(2010), 이창희(2011), 김현식(2013)은 경기, 호서, 영남 지역 방형계와 원형계 송국리형 주거지 탄소연대측정치 비교를 통해 원형계보다 방형계 주거지가 이르고 따라서 송국리유형은 송국리유형 분포권 각지의 선송국리유형에서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처럼 최근 탄소연대 보정곡선의 평탄면보다 이른 기원전 10-8세기에 해당하는 탄소연대측정치가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측정치 비교를 통해 방형계와 원형계 송국리형 주거지 더 나아가 선송국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의 선후를 비교해 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明承烈 2014; 宋滿榮 2015; 이홍종·허의행 2013), 방형계와 원형계 모두 그 상한이 기원전 10세기까지 올라가 이들의 선후관계를 탄소연대로 입증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김승옥 2006a: 160). 다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남한지역에서 송국리유형의 핵심권은 송국리형 토기, 주거지, 묘제 등이 세트를 이루며 밀집해 있는 금강 중하류역이고, 송국리유형을 구성하는 제 요소가 그 핵심권 밖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핵심권으로 전파되고 양식적으로 통일이 되었다기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원전 10세기경 유구경식 비파형동검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기원전 10-9세기 사이에 금강 유역권에 먼저 등장하고 이후 그 주변으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김승옥 2006a: 160; 宋滿榮 2004).

Ⅱ.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사회

1. 기존 연구 검토

호서지역에서는 송국리유형의 등장 및 확산(金壯錫 2003, 2006; 羅建柱 2005; 宋滿榮 2002, 2006; 安在皓 1996, 2006; 禹姃延 2002; 李眞旼 2003, 2004; 李弘鍾 2002, 2005a)과 함께 주거지 형식과 주거 방식(金承玉 2006a; 安在皓 2006) 및 묘제와 취락구조(金承玉 2001, 2006b, 2006c; 安在皓 2006; 李弘鍾 2007)가 변하며 취락의 대내적·대외적 위계가 형성(金範哲 2006a, 2006b; 金承玉 2001; 金壯錫 2006, 2007; 宋滿榮 2002; 安在皓 2004, 2006; 李弘鍾 2002, 2005a)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수전농경의 본격적 채택(金範哲 2005a, 2006b; 金壯錫 2003; 李弘鍾 2002, 2003, 2005b) 및 비파형동검의 도입(姜仁旭 2005; 裵眞晟 2007; 李盛周 2007; 이형원 2009)을 통해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변화와 맞물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여러 연구자들이 호서지역 전-중기 사회변동을 전기 가구 또는 취락 중심의 사회조직에서 중기 취락 간 연결망 형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또는 정치체 중심의 사회조직으로의 변화로 보고 있다. 이는 유물이나 유구에 대한 형식분류와 편년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회변동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주거지, 무덤, 취락 등의 물질자료에서 관찰되는 변이가 계통론적인 시각에서 과거 인간 집단의 직접적인 반영물로 간주되고(김장석 2014; 황재훈 2014), 그 사회적 의미는 사회발전단계론이나 신진화론 또는 사회통합적 체계이론에서 파생된 틀에 기계적으로 대입되어 사회위계적인 차이로 환원된다(김장석 2007: 18-19).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물질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풍부한 사회적 함의를 단순화 또는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 연구에 주요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종일 2007: 150).

둘째, 취락 및 취락 간 관계, 취락의 구성단위 및 그 구성단위 간 관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김장석 2007). 그러나 개인, 가구, 공동체, 정치체 등의 사회적 단위와 그에 부여된 가치는 고정적인 실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의미를 지닌다(Yaeger and Canuto 2000). 이는 청동기시대 사회변동 연구에서 당연한 것으로 암묵적·명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를 과거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투영하는 대신, 개인과 집단 및 개인성(individuality)과 집단성(collectivity) 사이의 가변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김종일 2006).

셋째, 생계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기의 수도작 확산 현상에만 초점을 두어 그와 함께 강화되었을 흉년 대비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우정연 2014a: 105). 수도작은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높다는 이점과 함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실패했을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安承模 1998: 47-55). 따라서 당시 수도작이 호서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매력적인 생계방식으로 여겨져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고 가정하기 전에, 전기 내 또는 중기 내에서도 각 지역의 자연환경적·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생계방식과 흉년 대비책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취락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관심과 접근에도 불구하고, 취락에서의 일상적 삶과 무덤을 통해 전개된 매장관행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된 경우가 드물다. 무덤은 단순히 당시의 사회상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과거의 행위자

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매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중기 사회변동 과정에서 무덤이 했던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나 제도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에만 주목하다 보니 정작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겪었던 당시 인간 행위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입장과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사회변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인간 행위자는 대개 한 집단의 우두머리에 한정이 되는데, 당시 사회에는 우두머리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위치에 놓인 여러 행위자들이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질적 또는 상징적 자원에 대해 해당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하였던 행위자로서 우두머리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들보다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여러 행위자 범주 중 물질자료에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범주일 수 있다. 그러나 추종자 없이 우두머리는 존재할 수 없고, 우두머리뿐만이 아니라 추종자들도 자신의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나름의 성찰과 그에 기반한 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변동 과정을 맥락적·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두머리뿐만이 아니라 추종자들의 입장과 역할, 우두머리와 추종자들 및 우두머리와 다른 우두머리가 맺고 있었던 관계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정치경제적 전략과 사회문화적 가치

청동기시대 사회변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의 최대화 전략의 보편적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특정 사회의 가치 구조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개인의 이해(interest)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A. Strathern 1982). 욕망과 필요를 느끼는 한 개체로서 인간 행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해를 지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 개인 행위의 동기를 그러한 이해 추구에서 찾는 것 자체가 아니라 – 개인의 자기 이해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편협하게 정의된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이해가 행위 동기의 주요한 부분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삶의 복잡성에 걸맞지 않은 일차원적인 행위자 모델의 무비판적 재생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Kelly 1993: 461). 이에 김장석(2007: 18)이 지적했던 것처럼, 개인의 경제적 부가 모든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의 생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맥락에 따라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입되어 그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경제적 불평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야심을 지닌 자들은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집단적인 가치를 추구하려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것처럼 보이려 할 것이고, 이때 개인의 이해는 집단의 이해 또는 사회적 선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 또는 상호 보강적인 관계를 이룬다(Kelly 1993: 460). 예를 들어 사냥해 잡은 동물을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게 분배한다거나 아픈 이를 고친다거나 하는 일반적 복지에 공헌을 함으로써 위신이 얻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적인 위신 추구 행위의 결과는 사회적 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A. Strathern 1982: 39).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에 비해 지나치게 두드러진 일반적 복지에 대한 공헌과 이를 통한 위신 획득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대함 과시 전략'과 관련하여 후술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면대면(face-to-face) 관계가 주를 이루는 소규모 사회에서 행위자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도움 또는 장애가 되는 사회적 신망(prestige)과 오명(stigma)의 역할이다. '큰 권력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이

나타내듯이, 우두머리의 정치경제적 전략 수립 배경과 그 실행 결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신을 얻기 위한 목적만큼 오명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Kelly 1993: 26). 사회적 위계가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경제적 부를 사회적 위신이나 권위 또는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승인과 신망이 필요하므로(M. Strathern 1981: 181), 그러한 승인과 신망은 중요한 상징적 자원, 즉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원되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Giddens 1984). 따라서 정치경제적 야심을 지닌 이일수록 무절제한 야심 추구로 인해 집단의 신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선사시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정치경제적 전략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는 전략(conspicuous generosity), 즉 집단적 행사를 주최하고 향연을 베풀어 선물을 나누어줌으로써 집단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는 전략(Brumfiel 1994; Clark and Blake 1994; Earle 1997; Rowlands 1998; Spencer 1994)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략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또는 좋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집단의 신망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Bourdieu 1977: 11-2, 182). 선사시대 사회와 같은 소규모 사회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이가 앞으로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시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물을 받는 이가 그에 상응할 대가를 줄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 받는 이를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집단의 비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우위 또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나치게 이용하지 않도록 자신의 야심을 집단의 승인 수준에 맞추어 세심히 조절해야 한다.

이처럼 선사시대 사회 우두머리의 정치경제적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최대화 전략보다 여러 문화적 요인에 따라 훨씬 더 미묘(subtle)하면서도 복잡한(complicated)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수 있으므로, 우두머리와 집단 구성원들이 놓여져 있는 고유한 문화적 맥락과 가치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우두머리의 정치경제적 전략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난 것인지, 그러한 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에서 경제적 부나 정치적 권력을 최대화하려는 행위에 높은 문화적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는 한, 해당 사회에서 과연 최대화 전략이 실행되었는지, 실행되었다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지니며 어떠한 형태로 실행되었는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고찰의 대상이지 선험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Brumfiel 2000; Gillespie 1999; Robb 1999).

Ⅲ.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문화변동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물질문화 변동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주목해 왔듯이,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물질문화는 매우 특징적인 시공간적 분포를 보이는데, 이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우정연 2014a: 109-113, 2014b: 349-356). 중기가 되면 서해안 남부 일대와 금강 중하류역(C권)을 중심으로 하여 호서지역 전역에서 송국리유형이 발견되지만(禹姃延 2010; 李弘鍾 2002, 2005), 전기의 물질문화 분포상은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어 금강 상류역(A권)에서는 가락동유형이 주로 발견되고(공민규 2013) 아산만 지

역(B권)에서는 역삼동유형이 주로 발견된다(羅建柱 2013; 許義行 2013). B권 내에서도 A권과 인접한 곡교천 유역과 C권과 인접한 삽교천 일대의 전기와 중기 유적 출현 양상에 차이가 있다. 곡교천 유역(B-(1)권)에서는 전기 유적에 비해 중기의 유적 수와 규모가 크게 떨어지고, 이에 비해 삽교천 일대(B-(2)권)에서는 전기 유적뿐만 아니라 중기 유적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유적이 확인된다. 한편 C권 중에서도 서해안 일대와 금강 중류 남서부에서는 공렬토기가 일부 유적에서 발견되지만(C-(1)권), 금강 중류 남동부에서는 전기의 물질문화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C-(2)권).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취락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대규모 유적에 대한 전면 발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락 내 유구의 공간 분포상에 따른 취락의 전체적 구조에 대한 비교도 가능해졌다(이형원 2009: 113-115; 이홍종 2007: 126; 허의행 2007: 90-96). 이 중 정상부를 공지로 남겨두고 그 주위에 유구가 배치된 광장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역삼동유형 중심권인 B권에서 주로 발견되나(羅建柱 2013; 이홍종 2007: 28), A권의 청원 쌍청리 III-B지구와 만수리 유적, 연기 장재리 103지점, 용호리 용산과 합강리 생줄 유적, 공주 당암리 소골 유적, C-(1)권의 서천 추동리 I-A지구, 청양 학암리(2006) I지역과 분향리 유적, 부여 나복리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정상부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마을의 공공행사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지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羅建柱 2013: 99; 허의행 2007: 102). 정상부가 공지로 남겨진 유적의 상한연대를 비교해 보면 A권과 B권에서는 기원전 13-12세기까지 올라가고 하한은 모든 권역에서 중기까지 내려온다. 기 조사된 취락유적들 중에는 구릉 정상부가 조사되지 않은 유적이 다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시 구릉 정상부를 공지로 남겨두어 마을의 공공 모임이나 행사 장소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취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또 다른 하나는 주거지 밖에서 발견되는 수혈유구이다. 이러한 옥외 수혈유구(이하 수혈유구)는 그 형태, 구조, 입지 등에 따라 함정, 폐기장, 물품 보관시설, 야외 취사시설, 식량자원 저장시설, 식량자원 훈연 처리시설, 의례 관련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로 식량자원 저장시설로 쓰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장석 2008; 孫晙鎬 2004; 우정연 2014a; 이창호 2010; 許義行 2013). 또 수혈유구 출토 탄화물 분석(김경택 외 2012) 및 수혈유구의 기능에 대한 실험·민족지 고고학적 연구 성과(孫晙鎬 2004: 10; 이형원 2009: 170; 許義行 2008, 2010)와 종합해 볼 때, 수혈유구의 깊이와 식량자원의 저장 기간 사이에 대체적인 상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즉 깊이가 깊은 수혈유구는 식량자원의 장기 저장용으로, 얕은 수혈유구는 단기 저장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우정연 2014a: 116-118). 호서지역에서는, A권 수혈유구의 깊이는 한 지역 내에서도 유적 간 차이가 매우 크고, 이에 비해 B권과 C-(1)권에서는 유적 간 별다른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깊이 50cm 내외로 낮으며, C-(2)권 수혈유구의 깊이는 대부분 50cm 이상으로 깊다는 특징이 관찰된다(우정연 2014a: 117-118). 수혈유구의 취락 내 분포패턴은, 모든 권역에서, 전기 주거지만 발견된 취락의 수혈유구는 개별 주거지 주변이나 주거지들 사이에 분산 분포하지만, 중기 주거지가 발견된 취락의 수혈유구는 특정 지점에 군집하거나 주거군별로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우정연 2014a: 116). 이러한 수혈유구의 등장과 변화에 대해서는 수혈유구에 저장된 자원, 특히 식량자원의 '공공화' 가능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는 수혈유구의 군집화가 두드러지는 전기 후반 또는 중기 전반 이후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장석 2008; 孫晙鎬 2004; 허의행 2007, 2011, 2013).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식량자원 공공화를 김장석(2008)은 중기 수도작의 본격화에 따른 공동 생산과 분배 체계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석기조성비를 통해 봤을 때(우정연 2014a: 122-124), 전기에는 A권과 B권이 주로 점유된 가운데, A권 중 수렵구 출토율이 매우 낮고 식물가공구와 고석 출토율이 높은 금강 중상류역의 연기-공주(금강 이북) 지역에서는 식물자원, 특히 견과류와 같은 야생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B권 중 곡교천 일대의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양인석부 출토율이 높고 취락의 상대고도가 높아(朴性姬 2006) 양인석부와 주변 삼림지를 이용한 화전농경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安在晧 2012: 44). 중기에는 호서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점유되었는데, 각 지역 중기 유적에서의 탄화미(安承模 2008)와 편인석부의 증가는 중기 호서지역 전반에 걸친 수도작의 확산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호서지역 작물유체 분석 결과(김민구 외 2013; 安承模 2008) 및 C권에 한정되어 발견된 논 유구(許義行 2012)는 호서지역 중에서도 C권에서 수도작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수확구 출토율이 높은 C-(2)권이 당시 호서지역의 수도작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편 수렵구 출토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서해안 일대의 서산-홍성-보령-부여(금강 이북) 지역의 중기 취락에서는 수렵활동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표 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거석묘와 비거석묘 (우정연 2014b: 350)

권역	거석묘	비거석묘
A	68기 (13.3%)	58기 (14.6%)
B-(1)	14기 (2.7%)	7기 (1.8%)
B-(2)	44기 (8.6%)	2기 (0.5%)
C-(1)	348기 (68.2%)	141기 (35.4%)
C-(2)	36기 (7.1%)	190기 (47.7%)
총	510기(100.0%)	398기(100.0%)

호서지역에서는 무덤의 출현 양상에 있어서도 권역에 따라 매우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무덤이 C권에서 발견되고, B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A권에서는 B권에서보다는 많지만 C권에서보다는 적은 수의 무덤이 보고되었다(표 1). 입지와 분포에 있어서도, 구릉 정상에 무덤군이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경우는 주로 C권에서 확인되고, A권이나 B권에서는 주로 구릉 사면에 소수의 무덤이 산재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무덤과 공반되는 주거지와 무덤 부장품의 시기를 통해 볼 때, 호서지역 무덤의 대부분은 중기에 등장하였다고 판단된다(金範哲 2010a; 裵眞晟 2011; 孫畯鎬 2009a; 禹姃延 2011). 이 중 A권이나 C권에서는 무덤에서 동검이나 석검이 발견된 예가 다수 있지만, B권에서는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서산 반양리 유적 지석묘 출토 석검이 유일하다(우정연 2014a, 2014b). 호서지역 분묘유적 중 한 지점에서 3기 이상의 무덤이 보고된 유적을 무덤군을 이루는 무덤 간에 공유되는 무덤축조 규칙의 유무와 무덤 간의 개별적인 차이가 표현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2).[3] 첫 번째 그룹에는 특정 속성(들)을 통해 무덤간 개별적인 차이가 두 세 개의 범주로 범주화되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범주가 집단적 전통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적들이 속한다(禹姃延 2011: 45-56, 2014b). 두

3) 이 밖에도 한 지점에서 3기 이상의 무덤이 발견된 유적으로 A권의 대전 상대동 중동골·양촌 유적과 C-(2)권의 부여 중정리 유적이 있다(우정연 2014b). 그러나 대전 상대동 중동골·양촌 유적에서는 무덤간 공유되는 일정한 무덤축조 규칙도, 무덤간 개별적 차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칙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부여 중정리 유적 무덤에 대해서는 무덤의 보존상태 불량으로 인해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다.

번째 그룹에 속한 유적들에서는 유적 내 무덤 간 일정한 특성이 공유되기는 하지만 무덤 간의 개별적인 차이는 불규칙하고 일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우정연 2014b). 전체적으로 봤을 때, I그룹으로 분류된 분묘유적은 모두 C권에 속하고, II그룹에는 C권 유적과 함께 A권 유적도 포함되며, B권에서 3기 이상의 무덤이 군집을 이루는 경우는 한 예도 없다.

<표 2> 무덤 전통과 변이 관계에 따른 분묘유적 구분

그룹	유적
I	■ C-(1)권 : 보령 관창리A, 서천 오석리 · 추동리III, 청양 분향리, 부여 나복리
	■ C-(2)권 : 부여 송국리·가증리·동남리, 공주 남산리·삼각리·산의리·안영리 새터, 논산 마전리·원북리
II	■ A권 : 청원 황탄리·아득이, 대전 비래동·용계동·상대동(원골)
	■ C-(1)권 : 보령 관산리·관당리·노천리·달산리·평라리, 서천 봉선리, 청양 장승리, 부여 신안리·가증리(가좌)
	■ C-(2)권 : 공주 분강·저석리, 논산 원남·정지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릉 정상부의 공지나, 주거 밖에 설치된 수혈유구가 전기 취락에서부터 일부 관찰되기 시작하고, 중기 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유구, 무덤의 군집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중기가 되면 모든 권역의 취락 및 묘지에서 건축물이 일정한 집단적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배치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김장석 2008; 羅建柱 2013; 孫畯鎬 2004; 安在晧 2004; 禹姃延 2012; 이종철 2015; 이형원 2009; 이홍종 2007; 許義行 2012). 이는 특정 장소에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행위, 옥외 저장시설로서 수혈유구를 이용하여 자원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행위, 무덤 축조를 통해 개인, 집단,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가 개개인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의 기대와 승인에 기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김장석 2008; 禹姃延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의 조화를 존중하지 않고 개인성을 부각시킨다든지, 타인의 필요나 집단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해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이나 불명예를 불러왔을 수 있다.

또한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전기 유적에 비해 중기가 되면 유적 내와 유적 간 다음과 같은 공간적 기능 분화가 두드러지게 된다(박양진 2006: 15; 孫畯鎬 2008, 2010b; 安在晧 2004; 禹姃延 2012; 이형원 2009; 李弘鍾 2005b): (1)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주거 위주 공간·유적; (2) 수혈유구가 주를 이루는 저장 공간·유적; (3) 토기나 석기 등의 제작을 위한 수공업 작업 공간 또는 그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유적; (4) 논이나 밭과 같은 생산 공간·유적; (5) 마을 모임이나 행사 공간, (6) 시신이 안치된 매장과 의례 공간·유적 등. 이러한 분화가 두드러지는 중기에는 유적 내 또는 유적 간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서든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든, 전기보다 체계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한 상호작용이 여러 공간적·사회적 수준에 걸쳐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 빈번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일시적이었든 항시적이었든 우두머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취락에서든 중기 취락에서든 입지, 구조, 규모, 출토품 등에서 일반 구성원들의 주거와 뚜렷이 구분되는 우두머리의 주거를 비롯하여 우두머리에게 물적 자원이 차별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박양진 2006: 15; 이종철 2015: 434).

개인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욕망과 역량은 모든 사회적 행위에 필요하고 수반되지만,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악한 목적으로도 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성질이다(Rowlands 1985: 51-52). 개인성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소비될 때는 집단적 삶의 존속을 위협하기 때문에 악이지만 집단의 번영에 기여하였을 때는 선

이다. 호서지역에서는 이러한 개인성 자체를 집단성 증진에 정향시키는 담론과 관행이 전기부터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기가 되면 호서지역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행위자들의 정치경제적 행위의 주요 동기도 물질적 자원을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보다는 집단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위신이나 그를 통한 상징적 자원을 얻는 것에 있었다고 해석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반드시 평등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적 자원 분포에 있어서의 균등성이 상징적 자원 분포 또는 대인 간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의 균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J-I Kim 2002: 112-114). 집단성이 강조되고 물적 자원을 차별적으로 보유한 우두머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에서도 집단에 대한 공헌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위신이나 여타의 상징적 자원이 구성원들에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우두머리에게는 물적 자원의 소유와 소비 자체보다는 물적 자원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신망과 권위가 정치경제적 활동의 주요 동인이 되었을 수 있다(Kelly 1993: 490-499).

이처럼 호서지역에서는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이 높이 평가되고, 이에 따라 우두머리도 개인적인 만족 자체를 위해 물적 자원을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보다는 물적 자원을 집단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상징적 자원 획득과 활용에 있어서도 그를 최대화하려는 시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단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최대화 전략이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나, 바로 그 최대화 전략으로 인해 증대되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호서지역 전-중기 사회에서 최대화 전략은 오히려 자멸적인(self-defeating) 전략이 되었을 수 있다. 한편 우두머리와 추종자 및 우두머리들 간 맺었던 관계의 형태 및 성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권역 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기 A권과 B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백지대로 남겨졌던 C권에서는 중기가 되면 집단적 전통 형성과 유지를 위해 개인성의 표현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매장관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표 2>의 그룹 I). 필자가 별도의 논고를 통해 자세하게 다루었듯이, C권에서는 개별 무덤간 차이가 특정 속성(들)을 통해 두세 개의 범주로 범주화되어 표현되고 그러한 범주들이 열배치라는 집단적 전통에 위계적으로 종속되어 나타나거나, 그러한 범주들 간의 상호 대칭성이 강조되는 매장담론이 여러 유적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우정연 2014b). 이러한 매장담론이 서로 다른 행위자들 간 참조되고 반복되며 협상되는 과정은 일상관행에서 강조된 집단적 가치와 규범의 재생산 과정과 맞물려, 개개인의 행위 동기 자체가 집단적 질서, 가치, 번영을 위해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 걸쳐 엄격히 정향되고 '길들여지는'(M. Strathern 1981)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길들여지기'는 김장석(2008)이 제시한 당시 우두머리의 비파형동검을 통한 '구분 짓기' 전략이나 김범철(2010b)이 제시한 지석묘를 통한 '이념 조작' 전략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강조된 의미를 지닌다. 특정한 매장관행의 도입, 재생산, 변형 과정에는 우두머리와 (적어도 일부)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관 자체가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 수반되고, 우두머리의 정치경제적 전략이 수립된 것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이다(김종일 2004: 59; Barrett 1994; Thomas 1991a, 1991b, 1996; Tilley 1994). 즉 우두머리도 매장관행을 통해 표상되고 구성되는 담론과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역으로 우두머리 이외의 집단 구성원들 중에도 매장관행이 낳는 정치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각 행위자들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매장관행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적 효과에 대해 객관화하고 그러한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C권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집단성 고양과 집단에 대한 공헌을 통해 사회적 위신을 얻는 우두머리의 전략은, 이 권역에서 보편적 효율성을 지녀 여러 우두머리에 의해 널리 채택된 만큼 많은 경쟁자들과의 경쟁 과정을 수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신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관대함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두머리의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도 매우 관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 – 도움, 환대, 자선, 협동에 관한 것이든, 경쟁이나 갈등의 조정에 관한 것이든 – 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추종자를 잃게 됐을 것이다(Clark and Blake 1994; Earle 1997). 마찬가지로 희귀 물품 또는 외래 물품을 선물함으로써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신의 명망을 높이고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면, 그러한 물품 제작이나 수입에 대한 배타적 통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물품 획득에 실패했을 경우 추종자들 사이에 우두머리에 대한 불평이 생겨나 우두머리의 명성과 권위가 훼손되었을 수 있다(이희진 2016: 37-38; Spencer 1994).

C권에서는 수도작에 유리한, 상대고도가 낮은 구릉에 입지한 취락이 주로 발견되고(朴性姬 2006; 李弘鍾 2003), 벼의 장기 저장에 유리한 깊이가 깊은 수혈유구가 집중 분포하며(우정연 2014a; 許義行 2011), 또 현재까지 호서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논 유구는 모두 C권에서 보고되었다(許義行 2012). 이를 종합해 볼 때, C권은 당시 호서지역 수도작 중심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C권에서는 A권이나 B권에 비해 수도작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 및 노동력에 대해 보다 집약적이고 집단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졌고(김장석 2008: 31-33), 그러한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장기간에 걸쳐 전해졌을 것이다(우정연 2014b). 이와 함께 우두머리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나 우두머리와 우두머리 사이의 관계가 특정 경작 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생산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우정연 2014b). 집단성 고양을 위해 개인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위신을 얻는 전략이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 걸쳐 엄격하게 재생산되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A권이나 B권에서는 집단성 고양을 위해 개인성이 길들여지는 담론이나 관행이 C권에서처럼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 걸쳐 특정한 방식으로 엄격히 유지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대고도가 높은 고지성 취락이 주를 이루고, 양인석부나 석촉의 출토율이 높으며, 수혈유구의 깊이가 얕은 B권에서는 수도작보다는 수렵이나 화전농경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우정연 2014a: 126, 2014b). 또 B권 무덤에서는 집단 간 광역적 연결망 형성을 전제로 하는 동검(김장석 2008: 34-35)이나 석검(孫畯鎬 2010: 57)이 발견된 예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어, 이 권역에서는 동검이나 석검 교환을 통해 거시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결연집단이 아니라 국지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결연집단이 주를 이루었다고 추정된다(우정연 2014b). 이러한 자연환경적·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단 간 결연관계나 개개인의 소속집단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었으므로(우정연 2014b), 우두머리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나 우두머리와 우두머리 사이의 관계가 C권에서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C권이나 B권에서와 달리 A권에서는 구릉지대뿐만이 아니라 충적대지에도 취락이 입지하고, 취락 간 수혈유구 깊이 차이가 크며(우정연 2014a: 117), 어망추 출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우정연 2014a: 127). 또 매장관행에 있어서도 취락 간 매우 상이한 무덤축조 관행이 발견된다(우정연 2014b). 이러한 A권에서는 한 지역 내에서도 취락 간 생계방식 및 매장관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그만큼 우두머리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 및 우두머리와 우두머리 사이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姜仁旭, 2005,「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地域性에 대하여」,『韓國上古史學報』49.

공민규, 2013,『青銅器時代 前期 錦江流域 聚落 軟球』,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錦江流域 屯山式住居址 再檢討」,『湖西考古學』30.

김경택·김민구·류아라, 2012,「부여 송국리 유적 수혈의 기능: 제14차 발굴 자료의 검토」,『古文化』79.

金權中, 2008,「江原·嶺西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와 聚落 構造의 變遷」,『한일취락의연구 -생산유적과 취락유적』(한일취락연구회 제4회 공동연구회 발표자료집).

김민구·류아라·김경택, 2013,「탄화작물을 통한 부여 송국리유적의 선사농경 연구: 제14차 발굴자료를 중심으로」,『湖南考古學報』44.

金吉植, 1998,「扶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考古學誌』9.

金範哲, 2005a,「錦江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의 形成과 稻作集約化: 聚落體系와 土壤分布의 空間的 相關關係에 대한 GIS 分析을 中心으로」,『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 2005b,「錦江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중기 聚落分布類型 研究」,『韓國考古學報』57.

-----, 2006a,「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的 접근: 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家口간 貧富差/位階 분석을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51.

-----, 2006b,「중서부지역 青銅器時代 水稻生産의 政治經濟: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위계성과 稻作集約化」,『韓國考古學報』58.

-----, 2010a,「湖西地域 支石墓의 시·공간적 특징」,『韓國考古學報』74.

-----, 2010b,「湖西地域 지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韓國上古史學報』68.

-----, 2012a,「巨石記念物과 社會政治的 發達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 남한지역 지석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화를 위하여」,『韓國上古史學報』75.

-----, 2012b,「청동기시대 가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의미: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한국상고사학보』76.

-----, 2013,「청동기시대 전-중전이기 생계경제전략의 추이: 호서지역 '先松菊里○○'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湖南考古學報』44.

金承玉, 2001,「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韓國考古學報』45.

-----, 2003,「금강 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韓國考古學報』49.

-----, 2006a,「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2006b,「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韓國考古學報』60.

-----, 2006c,「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제 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2015,「편년과 지역적 이해」,『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金容乾, 2013,「中部 內陸地域 青銅器時代 前·中期 文化 轉移過程 研究 - 美湖川流域 聚落을 中心으로」,『湖西考古學』29.

金壯錫,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 과정」, 『韓國考古學報』 51.
-----, 2006, 「충청지역의 선송국리물질문화와 송국리유형」, 『韓國上古史學報』 51.
-----,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 17.
-----,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67.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송국리 유적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적 접근」, 『國史館論叢』 104.
-----, 2006,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2.
-----,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韓國考古學報』 63.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
김현식, 2013, 「청동기시대 중기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羅建柱, 2005, 「中西部地方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檢討」, 『錦江考古』 2.
-----, 2013,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의 成長과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韓半島 中西部地方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明承烈,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물질문화의 다양성 검토」, 『湖西考古學』 31.
朴性姬, 2006, 「青銅器時代 聚落類型에 대한 考察: 中西部地域 遺蹟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54.
-----, 2015, 「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권역」, 『고고학』 14-1.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報』 창간호.
박양진, 1999, 「아. 충청남도」,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서울대학교박물관.
-----, 2006, 「한국 지석묘사회 "족장사회론"의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14.
裵眞晟,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48.
-----,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2011,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 80.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대전 상대동(중동골·양촌) 유적』.
성정용, 1997, 「大田 新垈洞·比來洞 青銅器時代遺蹟」, 『호남고고학의 제문제』(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孫畯鎬, 2002, 「錦江流域 松菊里文化段階의 支石墓 檢討」, 『古文化』 60.
-----, 2004,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 10.
-----, 200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2007, 「松菊里遺蹟 再考」, 『古文化』 70.
-----, 2008,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 2009a,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墓制의 性格」, 『先史와 古代』 31.
-----, 2009b, 「湖西地域 磨製石劍의 變化想」, 『湖西考古學』 20.
-----, 2010a, 「송국리 취락의 시기와 성격」, 『부여 송국리유적으로 본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 (제3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2010b,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체계에 대한 초보적 검토」, 『湖南考古學報』 36.

宋滿榮, 1997, 「中西部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崇實史學』 10.
-----, 2002,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韓國 農耕文化의 形成』(韓國考古學會 編), 학연문화사.
-----, 2004, 「湖南地方 靑銅器時代 硏究 現況과 展望 - 湖南地方 松菊里文化 硏究 檢討」, 『밖에서 본 호남고고학의 성과와 쟁점』 (第12回 湖南考古學會 學術大會 發表要旨).
-----,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제 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 2010,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편년의 재검토 - 취락 편년을 중심으로」, 『中央考古硏究』 7.
-----, 2013, 「欣岩里式 土器 發生의 再檢討」, 『韓國上古史學報』 79.
-----, 2015, 「송국리유형 발생설의 학사적 검토」, 『韓國考古學報』 95.
安承模, 1998, 『東아시아 先史時代의 農耕과 生業』, 學硏文化社.
-----, 2008, 「韓半島 靑銅器時代의 作物組成: 種子遺體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28.
安在晧,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住居址를 통한 中期의 設定」, 『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 2006, 『靑銅器時代 聚落硏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2009, 「南韓 靑銅器時代 硏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2010, 「韓半島 靑銅器時代의 時期區分」,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2012,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韓半島 南部의 靑銅器時代 生計와 墓制의 地域相」, 『湖西考古學』 26.
禹娅延, 2002, 「중서부지역 송국리복합체 연구」, 『韓國考古學報』 47.
-----, 2010, 「금강중류 남부 송국리유형 상한 재고 -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 유적을 중심으로」, 『湖西考古學』 23.
-----, 2011, 「錦江中下流 松菊里型 무덤의 巨視的 傳統과 微視的 傳統에 대한 試論的 考察」, 『韓國考古學報』 79.
-----, 2012, 「錦江中流域 松菊里文化段階 社會의 威信構造에 대한 試論的 考察」, 『韓國考古學報』84.
-----, 2014a,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 물리적·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5.
-----, 2014b,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정신문화연구』 137.
이기성, 2000, 『무문토기시대 주거양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일본 죠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59.
이동희, 2014, 「송국리취락의 변화와 그 의미 - 최근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47.
이명훈, 2015, 「松菊里型 墓制의 檢討」, 『韓國考古學報』 97.
李盛周, 2006, 「韓國 靑銅器時代 '社會' 考古學의 問題」, 『고문화』 68.
-----, 2007,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硏文化社.
이수홍, 2014, 「청동기시대 주거생활 변화와 지역성의 사회적 의미 - 영남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90.

李榮文, 2002,『韓國 支石墓 社會 硏究』, 學硏文化社.

李宗哲, 2015,『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眞旼, 2004,「중부 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 역삼동 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韓國考古學報』54.

이창호, 2010,「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저장시설의 변화 양상」,『청동기시대 생업에서의 저장의 역할』(청동기학회 생업분과 2010년 워크샵 자료집).

李昌熙, 2011,「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의 原理와 活用(II) - 考古學的 活用과 適用事例」,『韓國考古學報』81.

李淸圭, 1988,「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韓國上古史學報』1.

李亨源, 2007,「湖西地域 可樂洞類型의 聚落構造와 性格」,『湖西考古學』17.

-----, 2009,『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李弘鍾, 2002,「松菊里文化의 時空的展開」,『湖西考古學』6·7.

-----, 2003,「松菊里型 聚落의 景觀的 檢討」,『湖西考古學』9.

-----, 2005a,「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韓國上古史學報』48.

-----, 2005b,「관창리취락의 경관」,『송국리사회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취락체계』, 서경문화사.

-----, 2007,「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湖西考古學』17.

이홍종·허의행, 2013,「송국리문화 재래기원설에 대한 재검토」,『先史와 古代』39.

李熙濬, 2011,「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嶺南考古學』58.

이희진, 2016,「환위계적 적응순환 모델로 본 송국리문화의 성쇠」,『한국청동기학보』18.

정치영·민은숙, 2011,「V. 고찰: 송국리유적 53-54지구 청동기시대 유구의 성격과 편년」,『松菊里VII - 부여 송국리 유적 제12·13차 발굴조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조현종, 2000,「농공구의 변천과 생산량의 증대: 도작과 관련하여」,『한국 고대의 도작문화』(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최범식, 2015,「靑銅器時代 中期 文化波及樣相 硏究 - 北漢江·南江流域 沖積地聚落의 生計經濟戰略과 관련하여」,『한국청동기학회 신진연구자 발표회』(자료집).

忠淸文化財硏究院, 2008,『烏石里遺蹟』.

하문식, 1999,「사. 충청북도」,『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서울대학교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1,『松菊里VII - 부여 송국리유적 제12·13차 발굴조사』.

-----, 2013,『松菊里VIII - 부여 송국리유적 제14차 발굴조사』.

허의행, 2007,「호서지역 역삼동·흔암리유형 취락의 변천」,『湖西考古學』17.

-----, 2008,「前期 靑銅器時代 竪穴遺構의 性格과 變化樣相」,『韓國靑銅器學報』3.

-----, 2010,「청동기시대 저장체계(System)의 양상과 변화」,『청동기시대 생업에서의 저장의 역할』(청동기학회 생업분과 2010년 워크샵 자료집).

-----, 2011,「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저장수혈의 양상과 변화」,『嶺南考古學』58.

-----, 2012,「湖西地域 靑銅器時代 灌漑體系와 展開樣相」,『湖南考古學報』41.

-----, 2013,『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연구』,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황재훈, 2009,「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湖西考古學』20.

-----, 2014,『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 -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arrett, J.C.,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 2000, A Thesis on Agency, in M-A. Dobres and J.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61-8, London: Routledge.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umfiel, E.M., 1994,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an Introduction, in E.M. Brumfiel and J.W. Fox (eds.),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3-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0, On the Archaeology of Choice: Agency Studies as a Research Stratagem, in M-A. Dobres and J.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249-55, London: Routledge.

Chapman, J., 2000, Tension at Funerals: Social Practices and the Subversion of Community Structure in Later Hungarian Prehistory, in Dobres, M-A., and J.E.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169-9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lark, J. and M. Blake, 1994, The Power of Prestige: Competitive Generosity and the Emergence of Rank Societies in Lowland Mesoamerica, in E.M. Brumfiel and J.W. Fox (eds.),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17-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hen, I. J., 1989, *Structuration Theory: Anthony Giddens and the Constitution of Social Life*, London: Macmillan.

Dobres, M-A and J.E. Robb (eds.), 2000, *Agency in Archa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Earle, T.,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in Pre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Power, Property, and the State*, London: Macmillan.

-----,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Gillespie, S. D., 1999, Olmec Thrones as Ancestral Altars: the Two Sides of Power, in J.E. Robb (ed.), *Material Symbols: Culture and Economy in Prehistory*: 224-53,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Hodder, I., 1986,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0, Agency and Individuals in Long-Term Processes, in M-A. Dobres and J.E.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22-3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elly, R.C., 1993, *Constructing Inequality: the Fabrication of a Hierarchy of Virtue among the Etoro*,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im, J-I, 2002, An Archaeology of Death: Interpreting the Spatial Structure of Burial Groups in the Songgungni Culture of the Korean Bronze Age,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5: 101-128.

−−−−−, 2004, The Growth of Individual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Bronze Ag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7: 31−60.

Moore, H. L., 1994, *A Passion for Difference*, Cambridge: Polity Press.

Ortner, S. B., 1994, Theory in Anthropology since the Sixties, in N. B. Dirks, G. Eley, and S.B. Ortner (eds.), *Culture/Power/History: a Rea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bb, J. E., 1999, *Material Symbols: Culture and Economy in Prehistor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2004, The Extended Artefact and the Monumental Economy: a Methodology for Material Agency, in E. DeMarrais, C. Gosden, and C. Renfrew (eds.), *Rethinking Materiality − the Engagement of Mind with the Material World*: 131−39, Cambridge: McDonald Institute for Archaeological Research.

Rowlands, M., 1998, Kinship, Alliance and Exchange in the European Bronze Age, in K. Kristiansen and M. Rowlands, *Social Transformations in Archaeology*, London: Routledge.

Sørensen, M. L. S.,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Spencer, C., 1994, Factional Ascendance, Dimensions of Lead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Centralised Authority, in E.M. Brumfiel and J.W. Fox,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31−4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athern, A., (ed.), 1982, *Inequality in New Guinea Highlands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athern, M., 1981, Self−interest and the Social Good: Some Implications of Hagen Gender Imagery, in S.B. Ortner and H. Whitehead, *Sexual Meanings: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166−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ztompka, P., 1993, *The Sociology of Social Change*, Oxford: Blackwell.

Thomas, J., 1991a, Reading the Body: Beaker Funerary Practice in Britain, in P. Garwood, D. Jennings, R. Skeates, and J. Thomas (eds.), *Sacred and Profane*: 33−42, Oxford: Oxford University Committee for Archaeology Monograph 32.

−−−−−, 1991b, *Rethinking the Neolith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6, *Time, Culture and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Woo, J−Y, 2009, *Power and Social Change in Korean Middle Bronze Age Mortuary Practice: Burials, Houses, and Contexts,* Unpublished Ph.D. Thesis,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Yaeger, J. and M. Canuto., 2000, Introducing an Archaeology of Communities, in *The Archaeology of Communities: a New World Perspective*, M. Canuto and J. Yaeger (eds.), London: Routledge.